

보도자료

2011년 2월 11일(금)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융합정책관 방송통신진흥정책과 오용수 과장(☎ 750-2150)
방송통신진흥정책과 김연진 사무관(☎ 750-2151) yjkim26@kcc.go.kr**방송콘텐츠 업계,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진흥 필요성에 공감
- 최시중 위원장, 방송콘텐츠 업계 CEO 및 관련단체장과 간담회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월 11일(금) 신년 인사회를 겸하여 방송콘텐츠 업계 주요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11년 방송콘텐츠 업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 위원장은 먼저, 디지털기술의 발전, 다양한 매체의 출현, 방통융합의 가속화로 인해 미디어산업구조가 네트워크와 플랫폼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올해,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였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각종 규제개선, 우수 콘텐츠 제작지원과 디지털 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방송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방송사와 제작사, 관련 전문인력 집단이 서로 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는 모범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는 방송콘텐츠가 스마트미디어시대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 콘텐츠 제작을 위해 관련 업체, 단체가 다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업계 참석자들은 방송콘텐츠의 다양성 제고와 활발한 해외진출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앞장서줄 것과 법·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송협회(곽덕훈 EBS사장, 안광한 MBC 편성본부 본부장), PP협의회(서병호 회장, 박성호 개별PP발전연합회장, 강신웅 (주)티캐스트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박창식 부회장, 안제현 삼화 네트워크사장), 한국방송작가협회(김옥영 이사장), 한국TV드라마 PD협회(이은규 회장), 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효정 이사장), 한국독립 PD협회(이흥기 이사장), 한국벤처투자(김형기 대표),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유재홍 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끝.